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매개효과*

The Effects of Mothers' Phubbing on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1차원고접수: 2025.10.08. 수정원고접수: 2025.11.26. 최종게재결정: 2025.12.22.

김영솔¹ · 강수정²

¹덕성여자대학교 상담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전공, 석사

²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조교수

Kim, Youngsol¹

Kang Sujeong²

¹Dept. of Counseling for Children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²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 간 관계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3 ~ 5세 자녀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제 변인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 자녀 연령 및 성별,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고려되었다. SPSS 22.0과 Process macro 4.2로 분석한 결과, 첫째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퍼빙이 기존의 유사한 개념들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라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유아의 바람직한 스마트기기 사용 실천과 부모-자녀 간 질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부모 퍼빙, 스마트기기 사용, 스마트기기 과의존, 놀이성, 매개 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hubbing and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Data were collected from 400 mothers of children aged 3 to 5 in South Korea's metropolitan areas. After excluding five insincere responses, 395 participants' data were analyzed. As control variables, monthly household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 the child's age and gender, and mothers' smart device usage time was entered. SPSS 22.0 and Process macro 4.2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phubb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young children'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Second, young children'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layfulness. Third, mothers' phubbing significantly influenced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through the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supporting the differentiation of the phubbing concept and revealing the negative impact of smart device use on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The results may promote healthier smart device usage among mothers and children and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parent-child interactions.

Keywords parents' phubbing, smart device usage, smart device overdependence, playfulness, mediating effect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5)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강수정 (Kang Sujeong)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조교수 (Dept. of Counseling for Children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E-mail. hoy08@duksung.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전인적 발달을 이룬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1989)에서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Vygotsky(1978)에 의하면 놀이는 유아가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수단이다. 이러한 놀이를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놀이성(playfulness)’이다. 놀이성은 유아가 놀이하도록 하는 잠재적인 힘으로써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원동력이다(Boyer, 1997). 이는 유아의 놀이 성향뿐 아니라 자발적인 놀이 참여 정도를 반영하여 발달 정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Hong et al., 2009).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신체(이미경, 부성숙, 황규영, 2019), 인지(박영림, 김명순, 2022), 사회(온운방, 서현아, 2022), 정서(박지영, 김용숙, 배성문, 2016), 언어(김상아, 이운선, 2021) 등 전인적 발달 영역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즉 놀이성은 단순한 놀이 성향에 그치지 않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보람, 2022). 그러나 놀이성은 관찰이 어려운 내적 성향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Lieberman, 2014).

특히 유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이다(Bowlby, 1969). 이 시기의 부모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상호작용 대상이자 놀이 상대이다(최은정, 김은향, 2019).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태, 김정림, 2012). 그러나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연수, 정윤경, 2018; 김인숙, 김도연,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퍼빙’이라는 개념을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이 상호작용 맥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퍼빙(phubbing)’이란 전화기(phone)와 무시(snubbing)의 합성어로 사

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스마트기기에 집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2018). 즉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과도한 사용과 통제력 결여 등으로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퍼빙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시 행동으로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통제하여 퍼빙이 단순한 스마트기기 이용 정도와는 구별되는 영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퍼빙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inquart, 2016; Zhang, Ding, & Wang, 2021). 구체적으로 부모의 퍼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을 감소시키며(Incekar, Akça, & Turan, 2024),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전달 의도가 없더라도 자녀로 하여금 무시당함,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이광열,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경미, 2025). 이처럼 부모의 퍼빙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저해하여 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다만 차경미와 신보원의 연구(2025)에서 ‘인지적 융통성’, ‘자발적 몰입’, ‘주도적 참여’인 놀이성의 다른 하위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퍼빙은 비교적 최근에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연구 주제로 관련 연구의 양과 범위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퍼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스마트폰 중독이 유아의 놀이 기회를 제한시켜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장소현, 2023).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상생활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놀이

성과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김수향, 2024).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자녀와의 관계를 약화시켜 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 중 특히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퍼빙 행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질을 저하시켜 유아의 놀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기기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많은 영유아들도 스마트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안수빈, 홍예지, 박영아, 이강이, 2020; 장현진, 남옥선, 2021). 특히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임적 양육을 보일 수 있다(김윤선, 박수경, 2021;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김정은, 변유정, 2017). 이러한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방임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키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를 모델링하여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퍼빙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의 퍼빙이 자녀에 대한 민감성을 저해하고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여 스마트기기 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오지은, 2025). 아울러 부모의 퍼빙은 유아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미디어 중단 시 부정적 정서 반응 증가 등 문제적 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Li, Fu, Weng, Liu, & Li, 2024; Zhang, Cao, & Li, 2024; Zhang, Liu, Zhang, & Li, 2024). 이처럼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 중에서도 특히 퍼빙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기기의 즉각적인 반응과 다양한 감각적 자극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쉽게 끌어들이며 급속히 발달하는 유아기의 뇌를 불균형하게 만든다(여성가족부, 2020). 스마트기기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뇌 발달 저하와 조절 기능 손상으로 인해 과잉행동, 품행장애, 사고력 및 지능 발달이 저하된다고 하였다(권장희, 201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 ‘팝콘브레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한국뇌과학연구원, 2019). 즉 스마트기기의 강한 자극에 몰입함으로써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유아는 자기조절능력과 외부 통제력이 미숙하여 이러한 매력적인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조상연 등, 2018).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길어질수록 대면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정서 표현성과 창의성 발달을 어렵게 하여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이지연, 2021; 홍예지, 박영아, 안수빈, 이순형, 이강이, 2017). 더 나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한 유아는 자유로운 표현 능력과 창의성 발달이 어려워져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김윤나, 박희숙, 2016). 따라서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자율적인 놀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부모의 퍼빙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정도가 증가하면 유아의 놀이성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모 퍼빙과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그리고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개인적 특성 변인인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나 중독 경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민희, 2022; 김윤선, 박수경, 2021; 이금희 등, 2020;

정하영, 2020; 최성자, 2019). 그중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의존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의존을 매개로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김민희, 2022).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부모의 퍼빙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퍼빙은 자녀와의 질 높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며(오지은, 2025), 자녀는 부모를 모델링하여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하영, 2020). 이는 능동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기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유아기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은 현실(보건복지부, 2018)을 반영하여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통제변인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 자녀 연령 및 성별 그리고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퍼빙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하여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한국 국적 및 모국어가 한국어이며, 발달 장애가 없는 3 ~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경기도 165명(41.8%), 서울 104명(26.3%), 인천 36명(9.1%), 부산 28명(7.1%), 대구 19명(4.8%), 대전 17명(4.3%), 울산 17명(4.3%), 광주 9명(2.3%)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5 ~ 39세 199명(50.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 ~ 44세 123명(31.1%), 30 ~ 34세 51명(12.9%), 45세 이상 19명(4.8%), 29세 이하 3명(0.8%)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 ~ 500만원 미만 81명(20.5%), 500 ~ 600만원 미만 76명(19.2%), 300 ~ 400만원 미만 64명(16.2%), 600 ~ 700만원 미만 47명(11.9%), 700 ~ 800만원 미만 44명(11.1%), 900만원 이상 37명(9.4%), 800 ~ 900만원 미만 23명(5.8%), 200 ~ 300만원 미만 17명(4.3%), 200만원 미만 6명(1.5%)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242명(61.3%), 전문 대학 졸업 93명(23.5%), 대학원 졸업 35명(8.9%), 고졸 이하 25명(6.3%) 순이었으며, 아버지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227명(57.5%), 전문 대학 졸업 70명(17.7%), 고졸 이하 52명(13.2%), 대학원 졸업 46명(1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직업은 전업 157명(39.7%), 미취업 137명(34.7%), 시간제 55명(13.9%), 휴직 중 46명(11.6%) 순으로 많았다. 자녀 연령은 3세 131명(33.2%), 4세 133명(33.7%), 5세 131명(33.2%), 자녀 성별은 남아 199명(50.4%), 여아 196명(49.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 퍼빙

어머니 퍼빙은 Roberts와 David(2016)의 파트너 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95)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거주지역	서울	104	26.3
	경기도	165	41.8
	부산	28	7.1
	대구	19	4.8
	인천	36	9.1
	광주	9	2.3
	대전	17	4.3
	울산	17	4.3
어머니 연령	29세 이하	3	0.8
	30 ~ 34세	51	12.9
	35 ~ 39세	199	50.4
	40 ~ 44세	123	31.1
	45세 이상	19	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	1.5
	200 ~ 300만원 미만	17	4.3
	300 ~ 400만원 미만	64	16.2
	400 ~ 500만원 미만	81	20.5
	500 ~ 600만원 미만	76	19.2
	600 ~ 700만원 미만	47	11.9
	700 ~ 800만원 미만	44	11.1
	800 ~ 900만원 미만	23	5.8
	900만원 이상	37	9.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	6.3
	전문 대학 졸업	93	23.5
	4년제 대학 졸업	242	61.3
	대학원 졸업	35	8.9
어머니 직업	미취업	137	34.7
	휴직 중	46	11.6
	시간제(파트타임)	55	13.9
	전업(풀타임)	157	39.7
자녀 연령	3세	131	33.2
	4세	133	33.7
	5세	131	33.2
자녀 성별	남아	199	50.4
	여아	196	49.6

빙 척도를 이광열(201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9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다른 사람’을 ‘자녀’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와 식사할 때 스마트기기를 꺼내 확인하곤 한다’ 등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2)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6)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9개 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스마트폰’을 ‘스마트기기’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유아 자녀는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등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양호한 수준이다.

3) 유아 놀이성

유아 놀이성은 Barnett(1991)이 개발한 유아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김미숙(2001)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으로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놀이 활동을 할 때 각 신체기관 간의 협응이 잘된다', '놀이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의 접근에 쉽게 반응한다' 등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국내 리서치 전문 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5년 2월 중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한하여 실시되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및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고, 한국 국적 및 모국어가 한국어이며, 발달 장애가 없는 3 ~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선별 문항을 추가하였다. 400명의 데이터 중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395명 데이터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

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 퍼빙, 유아 놀이성,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 퍼빙, 유아 놀이성,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 퍼빙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부트스트래핑($n = 5,000$)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어머니 퍼빙,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유아 놀이성, 통제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r = .32,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아 놀이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유아 놀이성($r = -.1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과 통제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퍼빙은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r = .4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월평균 가구소득($r = -.10,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 최종학력, 자녀 연령 및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r = .2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 자녀 연령 및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 놀이성은 통제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 자

녀 연령 및 성별,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머니 최종학력($r = .29, p < .001$), 아버지 최종학력($r = .2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r = -.11,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녀 연령 및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최종학력은 아버지 최종학력($r = .4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r = -.22,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녀 연령 및 성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최종학력은 자녀 성별($r = -.12, p < .05$),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r = -.15,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녀 연령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녀 연령 및 성별 그리고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 퍼빙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최종학력, 자녀 연령 및 성별,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는 10 미만인 1.01 ~ 1.40에 분포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Daoud, 2017). Durbin-watson 계수는 1.98 ~ 2.0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를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매개효과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어머니 퍼빙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 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9.15, p < .001$), 어머니 퍼빙($\beta = .25, p < .001$)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 퍼빙이 높을수록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beta = .16, p < .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어머니 퍼빙과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설명력 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91, p < .01$). 어머니 퍼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beta = -.23, p < .001$)은 유아 놀이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높을수록 유아 놀이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 관계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 =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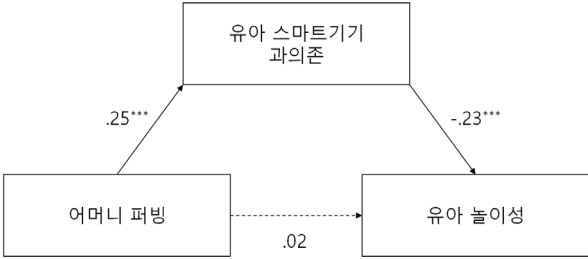
변인	1	2	3	4	5	6	7	8	9
1. 어머니 퍼빙	-								
2.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32***	-							
3. 유아 놀이성	-.00	-.19***	-						
4. 월평균 가구소득	-.10*	-.02	.01	-					
5. 어머니 최종학력	-.07	-.07	-.05	.29***	-				
6. 아버지 최종학력	-.02	-.09	-.00	.23***	.45***	-			
7. 자녀 연령	.02	-.02	.06	.02	.07	-.06	-		
8. 자녀 성별	.00	-.09	-.04	.04	.03	-.12*	-.01	-	
9.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47***	.29***	.06	-.11**	-.22***	-.15**	.04	-.09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 (N = 395)

구분		모형 1 (종속변인: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모형 2 (종속변인: 유아 놀이성)			
		<i>B</i>	β	se	<i>t</i>	<i>B</i>	β	se	<i>t</i>
통제 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01	.05	.01	.96	.01	.04	.01	.73
	어머니 최종학력	.01	.01	.04	.24	-.03	-.05	.04	-.82
	아버지 최종학력	-.06	-.09	.04	-1.65	.00	.00	.03	.06
	자녀 연령	-.03	-.04	.03	-.84	.03	.04	.03	.87
	자녀 성별	-.09	-.08	.05	-1.76	-.04	-.05	.05	-.90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11	.16	.04	2.97**	.07	.11	.04	1.86
독립변인	어머니 퍼빙	.18	.25	.04	4.63***	.01	.02	.04	.34
매개변인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	-	-	-	-.21	-.23	.05	-4.31***
<i>R</i> ²		.14				.06			
<i>F</i>		9.15***				2.91**			

* $p < .05$. ** $p < .01$. *** $p < .001$.



*** $p < .001$.

그림 1. 어머니 퍼빙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을 5,000으로 설정하고 신뢰구간 95%에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접효과는 -.04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은 -.06 ~ -.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 퍼빙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 ~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하여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퍼빙이 유아의 문제적 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Li et al., 2024; Zhang et al., 2024a; Zhang et al., 2024b)와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의 퍼빙은 자녀의 신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방해하여 유아기 자녀가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는 유아가 부모를 모방하여 스마트기기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오지은, 2025).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고

표 4.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N = 395)

경로	효과 (Effect)	표준오차 (S.E.)	95% C.I.	
			하한값(LLCI)	상한값(ULCI)
어머니 퍼빙 →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 유아 놀이성	-.04	.01	-.06	-.02

려된 변인 중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유일하게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 퍼빙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단순한 사용 시간 차원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접근하여 퍼빙이 유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유아 놀이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저하된다는 연구(김윤나, 박희숙, 2016; 홍예지 등, 2017)와 일치한다. 반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놀이성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남궁기순, 김희영, 2020)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어머니의 평가에 기반한 본 연구와 달리, 남궁기순, 김희영(2020)의 연구는 담임교사의 평가를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유아 놀이성 평가는 스마트기기 접근성이 높은 가정환경 내에서의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유아 놀이성 평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스마트기기 접근성이 낮은 유아교육기관 환경에서의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유아의 놀이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 주체를 통한 놀이 맥락별 놀이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유아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놀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팝콘브레인 현상을 초래하여 스마트기기와 같이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만들고 일상적인 놀이에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한국 뇌과학연구원, 2019). 또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들어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지연, 2021). 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이 높을수록 대면 상황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였다(김윤나, 박희숙, 2016). 놀이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놀이성이 이를 확장시킨다. 그러나 놀이성은 공격성과 우울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행동에 비해 즉각적인 개입을 요하지 않기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놀이성 발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 퍼빙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유아 놀이성에 간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이진주, 한지수, 2023)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유아의 놀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 연구(이지연, 2021; 홍예지 등, 2017)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지지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 퍼빙과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혹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 놀이성과 같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 퍼빙,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유아 놀이성의 세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특히 매개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민희 연구(2022)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유아의 놀이성에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퍼빙과 스마트기기 의존이 포괄하는 개념적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마트기기 의존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룬 퍼빙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유아 놀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사회적 맥락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퍼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자녀의 정서적 욕구 불충족이나 모델링을 통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매개로 유아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 먼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부의 협력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rishnakumar & Buchler, 2000; Teubert & Piquart, 2010). 특히 최근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퍼빙과 더불어 아버지 퍼빙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어머니의 주관적 견해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과 관찰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퍼빙을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퍼빙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 결과(차경미, 신보원, 2025)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퍼빙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매개효과의 설명력이 다소 낮아 어머니 퍼빙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다양한 심리 및 환경적 요인을 추가적인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퍼빙이 기존의 스마트기기 중독 경향성이나 과의존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과는 차별화된 독립적 개념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나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기현옥, 2016; 김윤선, 박수경, 2021; 이금희 등, 2020; 최성자, 2019). 그러나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오지은, 2025; 이진주, 한지수, 2023)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본 연구

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통제하여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2013년에 새롭게 등장한 퍼빙(Roberts & David, 2016, 2017)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유사한 개념들과는 차별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둘째 어머니 및 유아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눈에 보이는 행동적 측면, 특히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김나리, 김정민, 전정은, 2019; 배정호, 범은애, 2018; 유지형, 문혜련, 2017; 장혜원, 장소현,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문제행동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유아 놀이성은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이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되지 않기에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유아의 놀이는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등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놀이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놀이성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 퍼빙과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유아 놀이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유아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시적으로는 혼자 잘 놀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가 바람직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실천하고, 부모-자녀 간 질적 상호작용 향상을 도모하는 부모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유아기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4), 121-138.
- 권장희(2012). 스마트 기기 등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3-55.
- 기현옥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 연구: 양육스트레스, 성인애착,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리, 김정민, 전정은 (2019).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4), 95-107.
- 김미숙 (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 (2022).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2022).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적 바깥놀이가 유아의 놀이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만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아, 이운선 (202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20(3), 77-99.
- 김연수, 정윤경 (2018).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중독경향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간 관련성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인간발달연구, 25(1), 25-42.
- 김윤나, 박희숙 (2016).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4), 337-353.
- 김윤선, 박수경 (2021). 부모의 스마트기기 의존도, 놀이신념, 놀이참여도가 영·유아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20(1), 1-22.
- 김인숙, 김도연 (2017). 어머니의스마트폰중독경향성이학령전아동의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18(2), 221-244.
- 김희태, 김정림 (201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3), 71-9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6. 6. 21). 2015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17132&parentSeq=17132에서 2025년 3월 30일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3. 27).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5618>에서 2025년 5월 17일 인출
- 남궁기순, 김희영 (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인식, 양육행동,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서지능, 놀이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221-250.
-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김정은, 변유정 (2017).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5), 1-19.
- 박영림, 김명순 (2022). 유아의 놀이성, 가상놀이 수준이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가정환경의 조절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2), 211-214.
- 박지영, 김용숙, 배성문 (2016). 유아의 놀이성과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유아 성격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 85-106.
- 박현숙, 김수향 (2024).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부모학회지, 10(2), 5-30.
- 보건복지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8049#B_11.2에서 2024년 11월 15일 인출
- 배정호, 범은애 (2018). 영유아와 어머니 스마트기기 사용정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5), 481-490.
- 안수빈, 홍예지, 박영아, 이강이 (2020).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사용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7(1), 185-205.
- 여성가족부. (2020). 스마트폰, 우리아이 불균형한 뇌 발달의 원인!. <https://m.blog.naver.com/mogefkorea>에서 2024년 9월 30일 인출
- 오지은 (2025).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미디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순차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온운방, 서현아 (2022). 유아의 놀이성, 실행기능, 자기조절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42(6), 495-515.
- 유애열 (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형, 문혜련 (2017).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과잉행동, 충동성 및 부주의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1), 39-63.
- 이광열 (2017). 스마트폰 이용 행태와 미디어 멀티태스킹 동기가 퍼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요인 규명: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50(3), 349-368.
- 이미경, 부성숙, 황규영 (2019). 유아의 신체활동역량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7(4), 941-952.
- 이지연 (2021).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 영향과 놀이성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29, 65-87.
- 이진주, 한지수 (2023). 부모의 퍼빙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애착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1), 239-241.
- 장소현 (2023).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놀이참여태도와 놀이성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델 (APIMeM). *유아교육연구*, 43(4), 179-200.
- 장현진, 남옥선 (2021). 영유아 관련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연구동향.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6(2), 109-133.
- 장혜원, 장소현 (2022). 유아의 스마트폰 몰입경향성이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4), 463-480.
- 정하영(202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상연, 소혜진, 임성민, 고민숙, 송길연, 문진화 (2018).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관련 요인들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과의 상관관계.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6(3), 135-145.
- 차경미, 신보원 (2025). 어머니의 퍼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놀이참여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53, 1-24.
<https://doi.org/10.37918/kce.2025.6.153.1>
- 최성자 (201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김은향 (2019). 가족상호작용, 부모-자녀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1-21.
<https://doi.org/10.20437/KOAECE24-2-01>
- 한국뇌과학연구원. (2019).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시대, 정보처리 기술 뇌교육. *브레인*, (74), 10-13.
<https://www.brainmedia.co.kr/NEW/20981>에서 2025년 4월 8일 인출
- 홍예지, 박영아, 안수빈, 이순형, 이강이 (2017).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육아정책연구*, 11(2), 87-113.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yer, W. A. R. (1997). Enhancing playfulness with sensorial stimu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2(1), 78-87.
-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6). How “phubbing” becomes the norm: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nubbing via smartphone. *Computer in Human Behavior*, 63, 9-18.
<https://doi.org/10.1016/j.chb.2016.05.018>
-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8). Measuring phone snubbing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ic Scale of Phubbing(GSP) and the 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GSBP).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8, 5-17.
<https://doi.org/10.1016/j.chb.2018.06.020>
- Daoud, J. I. (2017). Multicollinearity and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949(1), 012009.
<https://doi.org/10.1088/1742-6596/949/1/012009>
- Hayes, A. F. (2013).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1(6), 12-20.
- Hong, J. C., Hwang, M. Y., Lu, C. H., Cheng, C. L., Lee, Y. C., & Lin, C. L. (2009). Playfulness-based design in educational games: A perspective on an evolutionary contest game.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17(1), 15-35.
- Incekar, M. Ç., Akça, S. Ö., & Turan, A. P. (2024). Mothers' phubbing behaviors and parental role: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79, 1-8.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 Li, X., Fu, Y., Weng, W., Liu, M., & Li, Y. (2024). Maternal phubbing and problematic media use in preschoolers: The independent and interactive moderating role of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nd effortful control.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7, 3083-3100.
<https://doi.org/10.2147/PRBM.S471208>
- Lieberman, J. N. (2014).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Academic Press.
- Pinquart, M. (2016). Phubbing and its impact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4), 485-491.
- Roberts, J. A., & David, M. E. (2016). My life has become a major distraction from my cell phone: Partner phubb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romantic partn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34-141.
- Roberts, J. A., & David, M. E. (2017). Put down your phone and listen to me: How boss phubbing undermines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necessary for employee

- engage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206-217.
- Teubert, D., & Pinquart, M.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coparenting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4), 286-307.
- United Nations.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child>.에서 2025년 2월 9일 인출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Zhang, J., Cao, Y., & Li, Y. (2024a). Screen preference and extraversion: Key factors in the link between mother phubbing and preschoolers' problematic media us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4(11-12), 1183-1195.
- Zhang, J., Liu, M., Zhang, Q., & Li, Y. (2024b). Mother phubbing and child problematic media use: The role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paternal coparenting.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7, 3327-3339. <https://doi.org/10.2147/PRBM.S431065>
- Zhang, Y., Ding, Q., & Wang, Z. (2021). Why parental phubbing is at risk for adolescent mobile phone addiction: A serial mediating model.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121, 105873.